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0호 [부제 제23192호] 주체99(2010)년 8월 28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의 표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평안남도당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 평안남도당대표회가 26일 평성시에서 진행되었다. 대표회장은 조선로동당장전 65돛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게 되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었다.

대표회장은 조선로동당장전 65돛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게 되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었다.

대표회장은 조선로동당장전 65돛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게 되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었다.

대표회장은 조선로동당장전 65돛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게 되는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었다.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일찌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어 주체사상의 보물고고를 풍부화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신군의 원리를 밝히심으로써 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식화하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과 국가, 무력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시으로써 우리 혁명이 주체사상, 신군사상의 기치높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소한 우여곡절과 편향도 없이 자주의 항로를 따라 끝까지 전진해올수 있게 하신데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대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일찌기 전당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시성상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순결체, 행동의 통일체로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시고 신군사대의 요구에 맞게 그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참모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될것을 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틀어쥐시고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주체의 군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군

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된 금성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뜨거운 등지적 사랑과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천만군민을 한몸에 안아 믿음과 주고 정을 주시며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만드셨으며 혁명적군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도록 하시어 신군사대군정단결의 새 력사를 펼쳐신데 대하여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 따라 김일성민족의 강한 정신력이 남김없이 폭발되는 속에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최첨단을 돌파하고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는 것과 같은 경이적인 사면들이 도처에서 편이 일어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자랑한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평안남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수도의 위성도일뿐 아니라 나라의 축소판인것만큼 공업에서도 1위, 농업에서도 1위,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도 단연 앞장서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도안의 수백개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갈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승리 자동차연합기업소와 안주지구관방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전력연합기업소, 2.8직통청년관방을 찾으신데 이어 올해 또다시 남흥청년화력연합기업소를 찾으시어 평안남도가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뚫어놓았을데 대하여 언급하셨고 장군님의 현명인 령도밑에 순천과 북창, 덕천과 안주를 비롯한 도안의 탄전들과 동력기지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고 남흥에서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CNC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서 자동차생산과 비날론 생산전망이 밝아지고 열려 도안의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개천-태성호자연호를식물같이 완공되어 사회주의맛이 나게 정리된 포전들에 훌륭한 작황이 펼쳐지고 백송종합식로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러진것을 비롯하여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화되고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신경리, 선경마을이 일떠선것과 같은 도의 자랑한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무한한 애국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의 최상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며 더없는 긍지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이러 평안남도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안국태동지, 안주시 당조직대표인 도당위원회 비서 량홍주동지, 순천지구청년관방연합기업소 당조직대표인 순천지구청년관방연합기업소 지부 비서 문명학동지, 평원군 당조직대표인 원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한정화동지, 도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문환호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의를 전폭적으로 열렬히 지지찬동한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수령님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조직력과 규율성이 강한 전투적당으로, 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똬뚱 일심단결의 전위대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

끄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년간 신군사대의 요구에 맞게 군대를 틀어쥐고 당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위대한 신군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밑에 우리 혁명위업을 불패의 강군으로 위용될것을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올랐으며 이 때문에 강성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에만도 도의 여러 단위들을 편이 찾아주시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평안남도, 강성대국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온 세계가 선군조선 김일성민족을 우러러보게 해야 한다는 단대한 배짱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최첨단과학기술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대표회에서는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대표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할 끝없는 기쁨과 격정을 금치 못하며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쳤다.

대표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이 세상 끝까지 혁명의 길을 걸어갈 드높은 각오와 열의로 뛰어넘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보낸 대표자들이 선거되었다.

조선로동당 평안남도당대표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최첨발전소건설에서 일대 진공전을 벌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경공업성 산하단위 기술준비반 리은경, 로동자 리성욱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같은 일에 헌신하면서 최첨속도장조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덕천시일반용품수배상점 부원 김정옥은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내일 일념안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어 그들이 총공격전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 기간 618건설돌격대원들을 잘 도와주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덕천시인민위원회 로동자 유태숙은 그 영광을 간직하고 최첨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였으며 중구역종합식당 로동자 김정애도 부강조국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줄 애국의 마음안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물자를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대외전람총국 산하단위 보급원 전혜영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

이것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웅대한 본분으로 자각하고 여러해전부터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 618 건설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백두산지구에 뜨겁게 어려있는 절세위원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일 일념밑에 대동강구역 청류1동 47인민반 설인숙, 중구역 경림동 40인민반 유은주는 가족과 함께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적극 도와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원 김연희, 식료일용공업성 산하단위 로동자 양선미는 백두산전국청년발전소를 나라의 만년재부로 일떠세우는데 기여할 한마음안고 지원사업에 앞장서고있다.

당의 뜻을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중앙정보통신국 로동자 김봉일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였으며 모란봉구역종합식당 로동자 김명순도 발전소건설에서 청년전위의 기개를 떨치고 있는 돌격대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 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평안남도당대표회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과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웰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이나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을 대표단장인 웰남인민군 총정치국 부주임 응우 쉐인 립중장이 27일 김정작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을 지미 카터가 2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청년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신군사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시며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칭송하고있다.

애국청년회 회장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굳게 믿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며 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키워주게입니다. 참으로 령도자님은 청년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아 혁명적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한 청년 단체 회장은

조선청년운동의 걸출한 령도자

남 녀 인민들 열렬히 흠모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일찌기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운동이라는데 대해 밝히시고 청년조직을 김일성주석님의 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고 말하였으며 전라북도 완주의 한 대학생은 《민중변영의 대를보가 될 청년조직을 김일성주석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김정일장군님은 청년운동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조선대학교의 한 교수는 제자들 앞에서 《〈현대와 청년들의 임무〉,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

갈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우리 청년들이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라야 할분은 오직 김정일령도자님뿐이시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광주 한 청년은 《우리모두 장군님을 청년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분의 령도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뛰쳐나사자.》고 호소하였다.

제주도의 청년학생들도 북녘 하늘을 우러리며 《청년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태양인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배필은 창창하다.》,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못별이 되자.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라고 격조높이 웨쳤다.

본사기자

당의 청년층시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선군시대의 억센 전위투사들로

우리 당의 청년층시사상이 꽃피고있는 내 조국땅에 조선청년들의 뜻깊은 명절인 청년절이 왔다.

깊은 회억속에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노라니 어버이장군님의 청년층시사의 높은 뜻이 함축된 《청년들을 사랑하라!》의 구호에 당겨진 의미가 다시금 언어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동서고금에 그 어느 나라 철학자도 정치가도 청년문제에 대하여 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청년들을 민족의 꽃으로, 주체혁명위업의 민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준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다. 하기에 청년절을 맞이한 우리 청년들은 인생에 두번다시 오지 않을 귀중한 청년시절을 어버이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 선군시대가 기억하는 청년영웅이 될 불라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장년동맹위원회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물론 방법론을 가지고 확고히 정

장년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행하여 청년들이 실천으로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게 하고있다.

발전소물길공률공사를 할 때였다. 공장, 기업소 당 및 행정직업자들과 협조회부일군들의 참가밑에 열린 협의회에서는 이 과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였다. 대부분의 일군들은 처음 해보는 일인것만큼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률기를 해본 경험있는 사람들로 력량을 편성하여 끝내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군당책임비서 김창현동무는 이 과업을 청년들한테 맡길 결심을 굳히었다.

《물론 경험있는 동무들에게 물길공률기를 맡기면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부차적인 일감만을 맡긴다면 그들은 어떻게 당이 바라는 청년전위들로 여세게 키울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공률기경험을 배워주어서라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게 하는것이 그들을 키우는 의미에서 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군당책임일군은 그길로 청년동맹일군과 마주앉았다. 물길공률기공사가 언제건설 못지

않게 중요하기때문에 당조직에서는 청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하는 그에게 청년동맹일군은 청춘의 힘은 아졌다 어디에 쓰겠는가. 청년들끼리가 본래를 보이겠다고 하였다.

물길공률기전투장은 청춘의 용맹이 넘칠것같이 발휘되는 격전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했던것보다 더 어려웠다.

어느날 공사장을 찾았던 군당책임일군은 공률기공사가 더 지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었다. 이 속도로 나간다면 발전소물길공률기를 보장할수 없었다. 애쓰는것에 비해 작업실적이 오르지 않게 되자 일부 열격대원들에서 작업조건과 설비들의 성능이 좋지 못한것을 들고나오면서 맥을 놓고있는태연하고 결사전에 뛰어들었다.

《청년들끼리 열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사기일을 보장하자면 시급히 성능이 좋은 새 착암기를 마련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열격대원을 책임진 청년동맹일군이 하는 말이 군당책임비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물론 새 착암기는 당장이라도 마련해줄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착암기를 안겨준다고 하여도 또다시 난관앞에서 주저할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군당책임일군은 청년들의 열격대원들속에 들어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전투현장에서 진행된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에 대한 연구발표 모임은 열격대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선군시대 청년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청년들끼리 열격대원들의 투쟁은 발전소건설중심강도사업에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하여 이들은 나라의 재부로 될 발전소건설을 군자체의 힘으로 5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자랑을 떨치었다.

보람찬 창조적 나날 수십명의 청년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되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다. 하지만 이런 기질도 당조직이 이끌어주고 꽃피워줄 때 남김없이 파시되게 된다. 군당위원회일군은 실천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금 확증하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남강발전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남강발전소 초급당위원회는 청년들이 많은 단위의 특성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큰 힘을 넣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청년동맹일군들의 세대교체가 빨리 진행되는 조건에서 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한편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업실행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하여 그들이 자기사업에 대한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초급일군들 모두가 청년동맹사업,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주의를 돌리며 그들과의 마음과 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하였다.

초급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청년동맹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리고 청년동맹원들을 단위의 주인으로 키워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오늘도 정상화되고있는 현지학습반운영이 좋은 사례로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하나인 현지학습반운영에서 먼 앞장에 선 사람은 초급당일군이다. 당세포비서들이 뛰어나고있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청년동맹원들의 학습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말없는 정치

사업으로 되었다.

일군들은 학습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였다.

일군들의 이런 실천적모범에 의하여 오늘 이 단위의 절반이상의 청년동맹원들이 명당공업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다른 청년동맹원들도 몇해안에 졸업하게 된다.

청년동맹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높아지니 단위의 전력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발전직장의 청년동맹원들은 최근 몇해사이만에 19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하여 받아들여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청년동맹조직에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대중체육, 군중문화화동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초급당일군들과 당초급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청년동맹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리고 청년동맹원들을 단위의 주인으로 키워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오날도 정상화되고있는 현지학습반운영이 좋은 사례로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하나인 현지학습반운영에서 먼 앞장에 선 사람은 초급당일군이다. 당세포비서들이 뛰어나고있다.

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청년동맹원들의 학습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말없는 정치

한덕수평양공업대학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일군들이 청년동맹일군들의 사업의욕을 높여주고 당적으로 안받침을 잘해주니 할 맛이 있다. 이것은 한덕수평양공업대학 청년동맹일군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대학 초급당위원회가 당의 의도에 맞게 청년동맹일군들이 주동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청년들이 나게 배설이 내밀도록 당적으로 안받침을 잘 해주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금치한것을 맡아하며 사업을 팽팡 내미는것을 좋아합니다.》

운장바다 칸디심기작업과 구비건설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대학청년동맹일군들이 맡아해낼것을 제기하였을 때였다.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업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일육십이 강하고 정열에 넘친 청년동맹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초급당비서 강영환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대학을 경험부분과 학기일제대상생의 종합적인 기지로 꾸밀때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한 톨 단단히 하려는 청년동맹일군들의 혁신적인 판결과 태도가 마음에 들었기때문이었다.

그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자.

초급당일군들의 이런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중시설과 공중호반철을 위한 전투목표에 이 문제를 반영하고 대학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갔다. 초급당일군들은 협의회를 열고 자체 소양과 수송, 로력과 작업시간문제들을 따져가며 작업시작을 반듯없이 짜고들도록 청년동맹일군들을 이끌었다. 초급당일군들은 늘 청년동맹일군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애로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풀어주고 하고 그들과 함께 작업장에서 일도 하면서 제기된 작업과제를 외다닥 해결하도록 고무추진하였다. 초급당일군들은 어려운 작업이 제기될 때마다 청년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설장을 리용하여 오락과 학부론노예경연도 정황에 맞게 조직하여 온 작업장이 흥성거리게 하였다. 온 대학이 들끓었다. 그리하여 대학에서는 운동장공급과 칸디심기작업과 대학구비건설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짧은 기일만에 끝냈으므로 대학의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년동맹일군들이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최일호

청춘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명천군 고참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명천군 고참리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청년층시사상, 청년층시정색을 실천에 드림없이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하도록 농장의 초급일군들을 잘 이끌어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정을 가지고 교양하는 것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양방법일뿐아니라 사회주의도에 본연에 맞는 힘 있는 교양방법입니다.》

얼마전 저녁이었다. 그날 사업정형을 총화하는 모임을 끝내려던 제 5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뜻밖에도 리당비서 김금철동무가 나타났기때문이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저녁에 작업반에 불꽃 나타낸 리당비서의 마음을 알게 된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무렵은 농장이 풀베기투로 끝났고있었다. 여기서 청년동맹원들의 기세는 날마라 높았다. 그들은 매일 자기에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 김희복종합대학에서 - 진성남 찍음

고심어린 투쟁으로 그들은 묘기가 큰 천천못과 축양탕크를 건설하고야말았다.

사업소에서는 바다바람을 막을수 있게 건물들을 2층으로 건설하고 물순환과파장지, 물가열탕크, 양수설비를 비롯한 축양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적건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콤포터중추에 따라 물의 온도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추운 겨울날씨 조건에서도 온도를 규정대로 보장할수 있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축양장을 건설해놓았다.

지난 7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주런이 늘어난 못마다에서 욕실거리는 보가지, 팔이를 비롯한 살천 물고기를 보시면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축양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있겠나 보았나 물고기를 많이 기르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유해에 사업소에서는 굴양식장도 새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자연미생물먹이도 꾸려놓았으며 저류지는 양식장으로 적합한 곳이었다. 물고기가 수심 1m나 되는 곳에 이들은 물자루를 투입하면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양식장을 훌륭하게 꾸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마련하였다.

이것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

적은 배우이기를 꾸리고 어장을 새로 개척하는데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사업소에서는 바다바람을 막을수 있게 건물들을 2층으로 건설하고 물순환과파장지, 물가열탕크, 양수설비를 비롯한 축양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적건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콤포터중추에 따라 물의 온도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추운 겨울날씨 조건에서도 온도를 규정대로 보장할수 있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축양장을 건설해놓았다.

지난 7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주런이 늘어난 못마다에서 욕실거리는 보가지, 팔이를 비롯한 살천 물고기를 보시면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축양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있겠나 보았나 물고기를 많이 기르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유해에 사업소에서는 굴양식장도 새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자연미생물먹이도 꾸려놓았으며 저류지는 양식장으로 적합한 곳이었다. 물고기가 수심 1m나 되는 곳에 이들은 물자루를 투입하면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양식장을 훌륭하게 꾸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마련하였다.

이것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

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축산에 품을 들이는것만큼 농사에서도 그 덕을 볼수 있게 되었다. 돼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사육수가 늘어나니 많은 거름이 생산되어 추운 땅의 지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생산이 자 곧 알곡생산이라는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되자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돼지우리와 잇달아 건설한 온실식효분산비료생산기지를 도입하여 리용하여 추운 겨울철에도 효분산비료생산을 중단없이 하였다.

당장전 65톤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도 농장에서는 모든 작업반들에서 돼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도록 하였다. 축산물생산이 오르면서 거름생산량과도 올랐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포전마다 집짐승을 거름을 번갈고 있는 것같이와 씨배치기를 제때에 한 다음 휴양기가 가라앉은 포전들에도 거름을 내었다. 며칠후부터 유기질비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살이가 잘 되었을뿐아니라 검푸른 잎새를 펼친 벼포기들이 줄이 벌어지게 아지를 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농장에서는 효분산비료로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에 새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여 알곡증수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농장의 현실은 축산과 농사를 유기적으로 배합할 때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이 안아온 열매

압록강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런 고심어린 투쟁으로 그들은 묘기가 큰 천천못과 축양탕크를 건설하고야말았다.

사업소에서는 바다바람을 막을수 있게 건물들을 2층으로 건설하고 물순환과파장지, 물가열탕크, 양수설비를 비롯한 축양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적건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콤포터중추에 따라 물의 온도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추운 겨울날씨 조건에서도 온도를 규정대로 보장할수 있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축양장을 건설해놓았다.

지난 7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주런이 늘어난 못마다에서 욕실거리는 보가지, 팔이를 비롯한 살천 물고기를 보시면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축양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있겠나 보았나 물고기를 많이 기르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유해에 사업소에서는 굴양식장도 새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자연미생물먹이도 꾸려놓았으며 저류지는 양식장으로 적합한 곳이었다. 물고기가 수심 1m나 되는 곳에 이들은 물자루를 투입하면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양식장을 훌륭하게 꾸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마련하였다.

이것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

에서 울려나오 고있다. 이에 고무원 청년들끼리 열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전투장으로 달려나간 청년들은 생각마다에 2-3개의 예비제탄장을 마련하고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면서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가고있다.

로동당원 김봉일

이런 고심어린 투쟁으로 그들은 묘기가 큰 천천못과 축양탕크를 건설하고야말았다.

사업소에서는 바다바람을 막을수 있게 건물들을 2층으로 건설하고 물순환과파장지, 물가열탕크, 양수설비를 비롯한 축양에 필요한 설비들을 현대적건으로 갖추었다. 그리고 콤포터중추에 따라 물의 온도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추운 겨울날씨 조건에서도 온도를 규정대로 보장할수 있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축양장을 건설해놓았다.

지난 7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주런이 늘어난 못마다에서 욕실거리는 보가지, 팔이를 비롯한 살천 물고기를 보시면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축양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있겠나 보았나 물고기를 많이 기르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유해에 사업소에서는 굴양식장도 새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자연미생물먹이도 꾸려놓았으며 저류지는 양식장으로 적합한 곳이었다. 물고기가 수심 1m나 되는 곳에 이들은 물자루를 투입하면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양식장을 훌륭하게 꾸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마련하였다.

이것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

축산과 농사를 잘 배합하여

팍산군 로하협동농장에서

팍산군 로하협동농장을 돌이아보면 저절로 마음이 호호해진다. 그 어느 포전을 보나 벼포기들이 아지를 훌쩍 치며 왕성하게 자랐기때문이다. 비결을 물으면 사람들은 축산을 잘 하여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한것이 알곡생산량의 담보로 되었다고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면 집집승먹이문제 해결과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고 축산을 잘하면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몇해전까지만도 이 농장의 축산물생산은 높은 수준에 오르지 못하였다. 농장원들은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축산물생산에서 소분을 내고있는 농장들에 찾아가보자.)

이렇게 결심한 농장일군은 길을 떠났다. 해마다 집짐승을 많이 기르면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알곡생산량을 높이고있는 어느 한 농장을 돌아본 농장일군은 눈이 번쩍 트였다.

축산도 과학이었다. 축산기계를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먹이공에 첨가제를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돼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었다. 하지만 농장마다 조건이 서로 다른것만큼 이 단위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 없었다.

농장일군은 전문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 이 문제

장시

빛나는 세월에 드리우는 노래

50년!
못 잊을 8월의 그날로부터
해와 달이 흘러
장장 50년

얼마나 성스러운 력사가
꿍이쳐온 세월이었던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승리에 승리를 떨쳐온
빛나는 세월!

선군대양의 빛발아래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8월의 이 땅에서 나는 생각한다
5, 000년과 50년
반만년과 반세기

이 나라 이 민족의 반만년력사속에
50년이란 길지 않은 이 세월을
우리는 왜 이리도 뜨겁게 더듬는
것이나
왜 이리도 소중히 부둥켜안고
못 잊어 노래하는것이나

빛나는 선군세월이여
너 어떻게 왔느냐
너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수백년을 주름잡고
수천년을 주름잡으며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50년
그 시작이 열린 뜻깊은 날에
내 삼가 이 마음을 세우노라

1960년 8월 25일!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장군님
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그날

백두산마루에 백포자락 날리시던
20대의 청년장군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
용솟음치는 끝음을 뿌리시며
불타오르는 아침해돋이
선군대양의 첫 자욱 찍으신 그
아침

또 한반의 백두령장을 우러러
강철의 포신을 들고
그이앞에 정렬한 무적의 철갑대오
금시라도 땅을 박차고 내달릴듯
해빛에 번쩍이는 무한궤도...

근위 서울류경주제 105땅크사단
사연깊은 인연으로
멜수 없는 정으로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제일 가까이 자리잡은 철갑의 부대

파도쳐오는 추억의 물결이여
해방산정의 그 달밤에
한뼉두들
땅크부대 첫 지휘관의 군복을
지으시던
어머님의 그 모습도 사무치게
그러보시고

몸소 군기를 수여해주시며
우리의 첫 땅크부대가 태어났
다고
그러도 기뻐하시던 그날의 수령님
움짱
수령님의 그 믿음안고

서울로 대전으로 노도처간
멸적의 그 동음소리도 다시 들으
시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
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
하자!》
수령님 품에서 태어나고
어머님의 손길로 자라난
근위부대가 높이 든 구호를 바라
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에 일어번지는 격정
이여

8월의 그날
이 땅에 해빛은 따사로우도
세계의 정치기류에는
회오리치는 광풍이 일고있었거니
와

피로써 전승을 떨친 사회주의총대가
제국주의 허장성세앞에 흔들리고
수정주의에 물젖은 사회주의배신
자들이
땅크와 포를 녹여 보습을 만들던
그때
그들이 가닿을 총창점은
혁명의 진취물도 강도도
원수들에게 다 내맡기는 파멸이
아니라

8월의 그 언덕에서
총대를 버린 나라들의 운명을
그날에 펼쳐 다 내다보시고
백두산총대의 제일사령은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
수령령위에
혁명의 승리가 있음을 선언하신
장군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
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
하자!》
총대로 높이 든 이 구호를
인민군대가 들고나갈
영원한 기치로 휘날려주셨나니

그날부터
전군은 포탄보다 먼저
수령철사옹위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철의 그 의지로
무한궤도의 사슬을 더 역세게 조
였어라

정일봉의 마루에서 최성익 울었다
쉬-쉬 격정에 파도치며
백두의 천리수해가 그이께로 달려
오고
천리방선고지와 고지들이
즐거움기 어깨걸고 메부러들 높이
솟구었다

수령님 두자루의 권총으로 열어
주시고
백두산 즐기즐기 혁명을 이끌어
오신 선군길
꺼졌던 조선의 숨결을 살린 총대
당과 정권이 태어나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백두산
총대의 길이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백승의 선군길로 이어지고이여
졌어라

그 길은 일찌기
전회의 날 최고사령부작전대앞에서
수령님으로 부터 받아안으신
만경대가문의 뜻이 어린 총대가
그이의 심장을 부른 길

조국은 보았다
인민은 보았다
백두산 김대장의 그 걸음으로
강철의 형장의 그 모습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에 서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길이어 선군길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심장을 내댈
철제의 애국자만이 결술수 있는 길
선군의 위업을 한 어깨에 떠메신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

뫼침선적 있었던가
에둔적 있었던가
산과 강이 가로막아도
앞으로만 나아가는
땅크의 직선주행로와 같이
선군의 첫날부터 장장 반세기
50년세월을
공격전에 서게신 위대한 선군명장

전선길 천만리
모질게 붙여친 시련의 눈비는 그
얼마
그이의 빨색산행군길에
천금이 만큼이로 다가선
고인의 길이굽이는 그 얼마

선군혁명!
바로 그앞에서 최고사령관의 위치를
언제나 최전선전초에 정하신분
긴긴세월의 낮과 밤을
야전생활로 이어오시며
전선길을 삶과 투쟁의 전우라고
하시는분

포성없는 판가리대결전의 그 길에
그 무슨 《종말》을 떠들며
원수들이 짜놓았던 어리석은
《시간표》를
강성대국승리의 시간표로 날려보낸
백두령장의 분과 초가 있었고
선군혁명의 력사가 끊어졌거니
와

흐르는 날과 달에 실려온
세월이 아니었다
산천도 눈물속에 잠겨있던
7월의 그날
반만년력사도 흐름을 멈추었던
그 나날

민족의 운명을 떠메시고
반만년력사를 안으시고
다박솔초소의 언덕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

그 언덕에서
변함없는 선군의 궤도우에
혁명의 기관차의 기적소리 울려
주시며
수령님의 영생을 총대로 지켜드
리셨나니

세여보라, 그이 넘으신 령과 령
그이 찾으신 초소와 고지들을

철령이여 오성산이여
적진을 발밑에 끌어보시며
최전방산악을 눌러 딛고 서신
우리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가
너의 높이를 이룬것 아니던가

50년!
빛나는 이 세월속에서
다지고다저는 자위적극방력
선군의 무한대한 힘을 폭발하며
우리의 위성들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장쾌한 핵역제력의 폭음이 지구를
울렸다

백두산혁명장군의 총대에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장정천만리가
아로새긴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
선군의 년륜이 빛나고있거니

우리 장군님 백두산총대를 앞세우고
천가지 만가지로 꽃피워주시는
그 행복을 생각할 때
이제는 꿈결에도 가려놓는
장군님 야전차의 동음소리

그날도 야전차는 밤길을 달리고
있었다
하늘 땅 바다에서
《보복》과 《응징》의 질은 화약
내가 밀려들던
내 조국의 준엄한 그 시각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는
달빛이 교묘한 명을 넣고있었다

달리는 야전차에
군사작전도와 함께
비날론숨이 소중히 실려있었다
아름아닌 선군덕이라고
감사와 고마움에 젖어 터지는
그 한복소리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
혁명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장군님
덜고 험한 길도 인민때문에 가시고
찬눈비도 인민때문에 달게 맞으시며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행복

달리는 야전차
흔들리는 야전차에서
잠깐 드신 폭풍에서도 그려보시는 집
진정 그이께서
꿈에도 소원하며 문을 활짝 여시
는 집은
인민을 앞세우고 들어서실
강성대국의 큰집

이 가슴엔 지금도 울리고있어라
못 잊을 전선길의 하루
삼복출 쏘아지는 폭우소리
물에 잠긴 길들
차버리로 물바다를 가르며 헤쳐가신
강행군길의 그 폭우소리

인민이 걱정할가봐
자신의 고생은 늘 웃음으로 감추
시며니
피로가 실린 음성으로
도로를 따라 달린것이 아니라
강물속을 헤치며 온것 같다고
말씀하시실 때

산천이 흐느꼈다
인민이 울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열렬한 조국애의 정화
아버이의 한없는 은혜
우리 장군님 인민사랑의 결정체

말하고싶구나
인민위해 천만고생도 락으로 여
기시며
우리 장군님 펼치시는 선군이
이 세상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것이다

말하고싶구나
드넓은 청춘파원의 파일나무마다엔
봄이면
그 사랑이 하얗게 꽃으로 피는것
이라고
그 뜨거운 열로 쇠뿔이 뚫고
그 빛으로 천이랑만이랑 오후이
여문다고

이 나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같이 말하더라
선군은
행복과 희망이라는 말
선군은
기쁨과 락이라는 말
그 정다운 부름으로 가슴마다 깃
들었더라

고난의 천만시련을 겪어온
어느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들게 되리라
선군이 있어 오늘의 락을 보게
되었다고

꽃피는 이 행복 넘치는 이 기쁨이
다름아닌 선군덕이라고
감사와 고마움에 젖어 터지는
그 한복소리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
혁명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장군님
덜고 험한 길도 인민때문에 가시고
찬눈비도 인민때문에 달게 맞으시며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행복

달리는 야전차
흔들리는 야전차에서
잠깐 드신 폭풍에서도 그려보시는 집
진정 그이께서
꿈에도 소원하며 문을 활짝 여시
는 집은
인민을 앞세우고 들어서실
강성대국의 큰집

이 가슴엔 지금도 울리고있어라
못 잊을 전선길의 하루
삼복출 쏘아지는 폭우소리
물에 잠긴 길들
차버리로 물바다를 가르며 헤쳐가신
강행군길의 그 폭우소리

인민이 걱정할가봐
자신의 고생은 늘 웃음으로 감추
시며니
피로가 실린 음성으로
도로를 따라 달린것이 아니라
강물속을 헤치며 온것 같다고
말씀하시실 때

산천이 흐느꼈다
인민이 울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한광춘

이 마을속엔 아직도 내리는 비
몇지 않아라 몇지 않아라

이런 날과 날들이 모여
세월을 이룬 50성상
우리 장군님 야전열차를 집으로
삼으시고
물결쳐 설레는 오후백과
만복이 꽃피는
무몽도원을 펼쳐오신 헌신의
50성상

50년이여 너는
비바람 눈보라를 헤쳐
탁원의 봄을 당겨온 세월
불꽃 핏기는 야전열차의 무쇠바퀴가
기적과 전변의 시간을 돌린 세월

너는 최철단의 령마루에 치달
아오른
CNC기계바다의 끝없는 흐름
주체철과 비날론폭포
주체비료우에 실린
격정과 환희의 벅찬 흐름

반만년 오랜 세월
달나라에 없어도본 꿈
별나라에 실어도본 소원
이 세월에 이루어지고
세계를 놀래우는
희한하고 거창한 창조물들이
총대로 떠받든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태어났거니

하기에 우리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의 전회의 시기마다
105땅크사단을 찾으시는데는
선군명도의 50성상을 아로새기는
무다른 이해의 첫 진군길에
주성철갑의 포성으로
총돌격전의 구명을 내리시였는가

산도 강도 단숨에 타고넘으며
번개같이 집주하는 땅크의 전진
속도를
비약하는 조국의 전진속도에 실어
주시고
온갖 폭풍을 짓누르는 강철의 동음
소리로
총진군대오의 숨결을 높취게 하여
주셨어라

누가 감히 막으랴
무섭게 적진을 들부시는
철갑대오의 맹렬한 돌진을
그 누가 막을수 있랴
조선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을
화산처럼 터지며 나아가는 인민의
전진을

총대가 약한 민족의 운명은 수난이고
선군을 떠난 강성대국은 한갓 빈발
이기에
총대로 진군로를 여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이끄시는 장군님

우리가 선군을 하기에
조선은 끄떡없고
강성대국의 그날도 멀지 않았
습니다
인민을 위해 선군혁명의 승리
를 위해
우리 또 떠남시다!

절풍인가 번개인가
산밭을 주름잡아 야전차는 달렸다
앞으로, 앞으로-
선군혁명이 나아갔다

그렇게 천날만날
장군님은 선군혁명의 조항를을
잡으시고
50성상
선군장정의 천만리를 오시었나니
50성상

보라
명장이 이끌어오신 그 세월을 따라
우주를 날으는
주체조선의 별 《광명성2》호를
그 자욱에 받들러 우뚝 솟은
핵보유국, 백두산강국의 위용을

불멸의 혁명승가로 하늘을 짝 덮
으며
행성을 굽어보는
아아, 그 이름 빛나는 조선!
수령님 넘월이 꽃피는
사회주의무몽도원 내 조국!

5, 000년이 길던가
50년이 길던가
강국의 모습으로 세계에 나선 조선
우리 장군님 선군명도의 50년
앞에
반만년이 머리속이지 않느냐

억만금의 재부로 우리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고 생각지
마시라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선군
것으로 총대기둥을 세우고
만년대물보를 얹은
우리의 강성대국은 선군의 강성
대국!

이제 세계는 들으리라
1960년 8월 25일이 있어
누리에 영광떨치며 솟아오를
강성대국승리의 축포성을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천만군민의 환호성이
하늘향을 진감하는 소리를

공격전의 50성상
백전백승의 50성상
제국주의승물을 거머쥐고
조국과 인민을 수호하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민족의 행운이 만대로 이어지는
선두땅크의 동음소리 동음소리
폭풍쳐 나아가는 무쇠철갑을 따라
폭이치는 주체혁명의 대오에
장군님 축복의 미소를 보내시어라

아, 눈부시여라
백두의 피줄기로 영원하고
백두산총대로 굳건한
내 조국의 천만년미려

우리 장군님의 선군 50년이
5, 000년 또 5, 000년으로
이어지고이여
영광스러운 김일성조선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무궁영원하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7일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문시홍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
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헬남인민군 정치일군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
통신] 김정각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 제1부국장은 27일 총
정치국 부주임 응오 수연 리총장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보도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
통신]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와 일행이 8월 25일부터 27
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위원장이 카터와 일행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담화에서는 조미사이에 호상
관심사로 되는 현안문제들이
론의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
원장은 조선반도비핵화와 6자
회담체제와 관련한 우리 공화
국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조선반도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라
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카터는 미국정부와 전 대
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인 품즈가
우리 나라에 불법입국한데 대
하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담
보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평양 출발
[평양 8월 27일발 조
선중앙통신] 우리 나라를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이어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선군청년전위들의 대오가 끝없이 흐른다
리진명 찍음

전국농촌청년작업반 (분조)
예술소품종합공연 진행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농촌청
년작업반 (분조) 예술소품종합
공연이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사동구역 리현남새문련동
농장, 사리현시 미곡협동농장,
속천군 철리농장을 비롯하여
전국농촌청년작업반, 분조원
들의 예술소품경연에서 입선
한 여러 단위가 공연에 출연
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장
군 65락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
속에서 뜻깊은 청년절을 기
념하는 크나큰 기쁨이 장내
에 차넘치는 가운데 설화와
합창 《로동당을 잘 만나 청
춘이 빛나네》로 공연은 시작
되었다.
출연자들은 시와 노래

독자의 권지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지난 3월 저의 아버지는 뜻
밖의 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
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
와하던 때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의 의료인
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정로병들의 건강을 잘 돌
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요 하면서 지극한 정성
을 다하고있는 이들의 모습에
서 저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을 송고한 도덕의리로 여기
는 내 나라의 참모습을 보았습
니다.
하지만 그들은 년로한 사람
의 병세로 보아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오늘
까지 치료사업을 멈추지 않았
습니다.
퇴근길과 휴식날에도 집에
들러 몸상태를 알아보고 자기
들이 마련한 귀한 보약제들도

[조선중앙통신]

선군으로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나가는 불패의 강국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영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인도네시아와 범아프리카운동 서기국에서 집회, 토론회,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주간 개막식, 영화감상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에는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영국주재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에티오피아청년주재사상연구위원회와 산하 예카, 골랄레, 리데라지부소조, 우간다전국학생운동 캄팔라시위원회,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의와 범아프리카운동 서기국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회 위원장은 집회에서 연설에서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진되었으며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투쟁에서 승리만을 떨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티오피아청년주재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토론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명도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군대를 무적불승의 대대로 강화발전시켜

시켰다. 그의 선군명도업적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루어져있는 사면적인 성과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간다전국학생운동 캄팔라시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 김일성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명도는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승리만을 떨칠 것이라고 하는 근본 요인이다.

그의 선군명도는 조선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위용 떨치게 하였으며 조선땅위에 강성대국을 향해 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펼쳐놓았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평도자이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인 영화감상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50년전에 벌써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총대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셨다고 하면서 그의 반세기에 걸치는 선군명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전진되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

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과 범아프리카운동 화합회창립 40돐 경축행사가 13일 리마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범아프리카운동 화합회 서기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경을 만난 때를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협회가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하여 자주시대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의 길을 찾으며 사회주의의 선을 적극 따라배울 목적에 결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협회가 지난 기간 조선의 현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경에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은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진되었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행사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이 상영되었으며 예술공연이 있었다.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하여 자주시대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의 길을 찾으며 사회주의의 선을 적극 따라배울 목적에 결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협회가 지난 기간 조선의 현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경에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은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진되었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행사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이 상영되었으며 예술공연이 있었다.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김정일동지께서 선군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셨다는 조선혁명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명도업적을 전하였다.

핀란드 코인포름보사 인터넷잡지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선군명도 50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잡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전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루하시었으며 인민군대를 그 어떤 대적도 어찌 못하는 강군으로 키우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옹호하시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들리시었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었다.

그의 선군명도업에 조선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도 덤벼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다.

수리야신문 《알 바이스》 20일부터 《김정일, 선군명도 50돐》이라는 제목으로 선군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50년째를 축하하며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칭찬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본사기자

부장조국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조선 청년들

여러 나라 청년사업일군들 강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평도명에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서 영웅적기개를 펼쳐가고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는 여러 나라 청년사업일군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란민족청년조직 위원장 페르다드 바르즈쿠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인민과 청년들은 반제반미투쟁,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에 게 있어서 이는 커다란 고무로 된다.

조선에서는 청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은 청년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들리고있다.

사회가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조선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선군명도업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확신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체표단장 장조희는 김일성동지청년운동사적교양실을 참관하고 이렇게 말했다.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의 구호에는 조선에서 펼쳐지고있는 청년사망의 정치가 잘 반영되어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찾아오셔서 건설자들을 닦아주고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

그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조선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고있다.

그들은 북부철길과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웠다.

김정일동지의 평도명에 조선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값 높은 삶을 빛내이기 바란다.

기쁘소 통일민주청년조직대 안젤로스 캐시야노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에 하는 김일성동지각하의 청년중시사상을 계승하여 조선청년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키시었다.

조선청년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를 높이 받들고 오늘날 그들은 부강조국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청년들이 반제자위위업실현에서 앞장 서리라고 믿는다.

세네갈민주청년동맹 대표 이브라히마 케이는 이렇게 강조했다.

조선청년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조선청년들의 투쟁기풍은 세계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세네갈민주청년동맹은 김일성사회의청년동맹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인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

최근 중국 《인민일보》는 새롭게 개건된 개신청년공원을 비롯한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즐기는 휴식의 인삿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최근 조선의 수도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새롭게 개건된 개신청년공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공원안에는 각종 최신형오락시설이 그르하게 갖추어져있으며 휴식장소와 간이식당 등 봉사시설들도 완벽하다고 하였다.

매일 공원에 와서 휴식과 오락을 즐기는 평양시민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산보를 즐기고 들놀이 좋아한다.

매일 저녁무렵이면 평양의 모든 공원이 흥성거린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보한다.

가족끼리 또는 두세명 친구들끼리 함께 와서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며 평양의 밤하늘에 걸거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신문은 명절과 휴식일에는 시민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들놀이 즐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했다.

휴식일이면 평양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도 보통강도 조선사람들의 주요유희오락장소가 된다.

남색이 좋으면 사람들은 강변에서 낚시질도 하고 배놀이도 한다.

강우에 떠있는 배의 종류도 다양하다. 노젓는 배도 있고 자전거버도 있고 고무보트와 패승정도 있다.

이 배들은 마치 갖가지 꽃잎마냥 아름다운 대동강과 보통강을 단장하여 생기가 넘쳐흐르게 한다.

평양의 유명한 대산도 시민들이 즐겨찾는 오락장소이다.

이곳에는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이 있다.

조선사람들은 또한 수영에 각별한 취미를 가지고있다.

신문은 무더운 여름철 창평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등 평양시에 있는 크고 작은 수영장뿐 아니라 원산과 남포 등지에 있는 해수욕장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물결생활이 부단히 개선되는데 따라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풍부해지고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기 식의 새롭고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창조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공원에서 휴식의 한 예를 소개하고는 평양시민들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배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리영

가봉에서 독립절 기념

가봉에서 17일 독립 50돐을 기념하였다.

기념 수에서 열병식과 경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지속적발전을 이룩할것을 호소

앙골라총통령 주재 에두아르 두 두스 씨투스가 17일 남부 아프리카개발공제 수리야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지역의 지속적발전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공동체성원국들앞에는 기어와 락투성을 없애고 전역

제 재철 회를 서방에 요구

짐바브웨총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22일 자기 나라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서방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는 서방이 제재를 통하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고 있다고 까뻐하고 짐바브웨는 그 어떤 제재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의 제재가 철회되기 전에는 그 어떤 양보도 있을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봉쇄책동 단죄

유엔인도주의문제조정사무소와 세계식량계획이 19일 공동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그 무슨 《안전보장》을 구실로 가지

살인마의 기만 놀음

비극적인 참가가 빚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탈리판을 소대》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결혼식장에 폭탄과 미사일들을 마구 퍼부어 피바다를 만들어놓고서도, 또 대낮에 장례식장을 침범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집단살육하고서도 그 무슨 《오복》이요, 《착각》이요, 《실수》요 하면서 말장난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미국의 그러한 술책은 다는 통하지 않고있다. 몇달전 미당국자들이 자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대통령을 초청해놓고 《민간인사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약한것은 그 어떤 반증이다.

문제는 미당국자들의 언약이나 미군사법관의 명령으로 이 나라에서 민간인사자를 과연 줄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9.11사건》이후 침략적 《반테러전》을 선포한 미국은 그것을 세계경제마당살현을 위한 민중치방으로 삼고 못하는 것이 없지 마구 날치고있다. 지어 미군은 다른 나라 국경침범을 허용한 《반테러전교리》까지 작성해놓았다. 여기에는 국제법도 국제관계규범도 다 무시하면서 남의 지명안에 마구 뛰어들어 범죄적목적을 실현하려는 미제의 날강도적인 속심이 깔려있다.

현재 날것을 갈망하는 강도에게는 누구나 장악할 수

적들의 침략기도에 경고

이런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21일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이란인민들속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군사적위협에 매여달리고있고 그 판변하여 그는 이란에 대한 그 어떤 공격시도도 적들에게는 자살행위로 될것이라고 연명하였다.

또한 이란군 총사령관이 최근 적들의 침략기도에 대해 단호히 경고하였다.

그는 이란군대는 침략자들을 처벌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면서 만일 적들이 이란의 자주권을 침범한다면 그들은 무자비한 타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연명하였다.

이란군대는 적들의 침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계속 강화할것이라고 그는 강조

하였다.

이란군 총사령관이 최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이란군대와 인민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적과 맞서 싸울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적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세 계 상 식

값비싼 대가로 찾는 고품의 비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피형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람들은 피라고 하면 모두 같은것으로 생각하고있었으며 지어는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도 서로 차이가 없는것으로 여겨왔다.

중세기에 의사들은 전쟁마당에서 피를 많이 흘린 병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피를 수혈하였는데 그중중 한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프랑스의 한 의사는 심한 비혈증에 걸린 16살 난 소년에게 새끼양의 피를 수혈하였는데 그 소년도 인차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해주는것이 아닌가.)

이것이 피속의 비밀을 밝히는 길로 과학자들은 유도한 의문의 시발점을 찾을수 있다.

드디어 오스트랄리아의 한 생물학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피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사람의 피는 다 같은 것이 아니며 피형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서 서로 다른 피가 혼합되면 역효과가 초래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실로 값비싼 대가로 찾은 거대한 발견이었다. 그때는 1900년이였다.

피로써

사람들에게 피를 수혈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떤 나라에서는 수혈을 금지할 때에 대한 법령까지 제정하였다. 그러던중 우연한 일이 벌어졌다.

1819년에 한 의사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피를 수혈하였는데 그의 생명이 구원되게 되었다. 아마도 피형이 우연적으로 맞아떨어진것 같았다.

(모든 수혈자들이 다 실제에서는 몇몇 유독 한사람만이 수혈을 받고 무사했는가. 이것이 사람의 피가 다 같은

로 동 복 이 레 복 으 로

것은 양복저고리의 뒤를 더럽혀 복이다. 이 옷은 중세기에 고부들의 마부들이 많이 입고다니던 옷이다. 양복저고리의 뒤를 더럽힌 옷은 말타기에 편리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어부와 마부들이 로동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입고다니던 옷이 지금은 남자들이 입는 국제적인 유행복

으로 발전한것이다.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도 매게 된다. 넥타이도 흰색이 목에 끼는 노끈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지금의 넥타이로 점차 발전하였다.

오늘의 넥타이가 일반화된 시기는 17세기경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로 동 복 이 레 복 으 로

것은 양복저고리의 뒤를 더럽혀 복이다. 이 옷은 중세기에 고부들의 마부들이 많이 입고다니던 옷이다. 양복저고리의 뒤를 더럽힌 옷은 말타기에 편리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어부와 마부들이 로동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입고다니던 옷이 지금은 남자들이 입는 국제적인 유행복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합 조

월남과 중국이 23일 무역과 투자분야에서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20일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국경횡단범죄를 막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토지를 비법적으로 매대한 행위를 적발, 통제하기 위한 생식기 등 무력을 새로 내었다.

잠비아내무상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모든 주민들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매대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내총생산 증대

메히프에서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대되었다. 20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신 형 독

뉴질랜드에서 신형독감으로 인명피해를 입었다.

19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신형

독감환자수가 454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일본북상 《자위대》의 무모한 군사연습소동

일본북상 《자위대》가 23일 후카이도의 지도세기지에서 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연습에는 1만 5000여명의 병력과 약 120대의 탱크, 40여문의 포, 50대의 비행기가 동원되고있다.

연습에서는 방어진으로 《백》을 저지시킨 다음 공격으로 이행하는 등의 훈련이 발판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제정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일본북상 《자위대》의 이와 같은 무분별한 군사연습소동은 지역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개 조 해

독감환자수가 454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개 조 해

독감환자수가 454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국기채무 증대

그리스에서 올해 2.4분기 국가채무가 총 3169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년과 비교해 65억 700만더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19일 이 나라 재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실업위기 격화

미국에서 심각한 경제체제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네바다주와 미시간주에서만 실업률이 각각 14.3%, 13.1%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실업위기 격화

미국에서 심각한 경제체제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7월에 네바다주와 미시간주에서만 실업률이 각각 14.3%, 13.1%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